전주제1산단, 미래형 산업단지로 첫걸음

'전북 전주 스마트그린산단 전환 사업단' 공식 출범식 개최
통합관제 · 스마트물류 · 에너지 플랫폼 등 4개 사업 추진

전북자치도는 도의 첫 산업단지인 전주제1일반산업단지를 디지털과 친환경 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산업단지로 전환할 '전북 전주 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이 26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주시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김호철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 혁신기관, 입주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사업단의 출범을 축하하고,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스마트 그린산단사업'은 낡은 산업단지를 디지털·친환경 기술로 개편하는 정부의 대표 뉴딜 프로젝트로, 전북에서는 군산국가산단에 이어 전주 제1산단이 두 번째로 지정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과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동시에 지정되며, 전주산단 혁신의 동력이 한층 강화됐다.

전북 전주 스마트 그린산단은 '공간·산업·사람이 조화된 클러스터 연계형 혁신밸리'를 비전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6개 핵심 사업에 총 888억원(국비 610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기반 신성장 산단, △무탄소 친환경 산단, △노후 환경개선 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통합관제센터 구축(15억원),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22억원), △스마트물류 플랫폼 구축(11억원),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22억원) 등 총 4개 사업이 우선 추진된다. 사업은 전북자치도, 전주시, 산단공, 지역 대학 및 혁신기관이 참여하는 '전북전주 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이 전담한다.

사업단은 향후 지자체, 기업, 지역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산단 조성 및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전북 전주 스마트 그린산단은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거점"이라며,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전북자치도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의 첫 산업단지인 전주제1일반산업단지를 디지털과 친환경 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산업단지로 전환할 '전북 전주 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이 26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트로트 공연'으로 전락한 지역축제

박정규 도의원, 도정질문서 "참여율 · 방문객 수 감소
축제 구조조정 · 지역예술인 참여 기회 확대 방안 마련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제417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지역축제가 급증했지만,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관심은 떨어지고 진부한 트로트 공연에만 의존하고 있는 지역축제 문제를 지적했다.

전북자치도의 지역축제는 2024년 기준 88건, 예산만 450억 원 이상이다. 2018년과 비교해 축제 수는 87.2%(42건) 늘고, 예산은 69.7%(185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축제 참여율은 2019년 61.3%에서 2023년 27.5%로 폭락했다. 같은 기간 대표적인 문화관광축제의 외부 방문객 비율도 5.86% 줄어 50.77%에 불과하며, 1인당 소비액도 12.13% 감소해 7,800원 수준에 머물렀다.

박 의원은 "지역축제가 우후죽순 늘어났을 뿐 정작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관심은 싸늘하다"며, "이제라도 전북자치도가 선제적으로 나서 지역축제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보다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접근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로트 가수 등 연예인이 참가하는 축제도 늘어났다. 2022년 25개에서 2024년 50개로 두 배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지역축제가 트로트 가수 공연이 중심이 되면서 축제 본연의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연이 열리면 팬들이 몰려오지만, 지역 주민은 뒷전이고 공연이 끝나면 바로 떠나버려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10분 남짓한 공연을 위해 한 명의 유명가수에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출연료를 지급하면서도 정작 지역 예술인은 한참 못 미치는 출연료를 받고 작은 무대나 한가한 시간대에 배치되고 있다"며, "지역축제의 중심이 되어야 할 예술인은 제대로 설 자리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암울함까지 느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도에서 지원하는 축제 선정 기준을 재정비해 지역예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축제예산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예술인 지원금으로 배정하고, 유명 가수와 지역예술인이 함께 무대에 오를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역의 발전과 문화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축제를 기획하고, 지역예술인과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가 될 때 진정한 지역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디노랩' 전북 상륙… 핀테크 7개사와 금융혁신 이끈다

우리금융그룹 협업으로 맞춤형 교육 · 멘토링 · 투자 연계
디지털 금융특화 창업지구 조성 통한 스타트업 성장지원

전북자치도가 디지털 금융 혁신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전주 미래기술혁신센터에서 '2025년 금융혁신 벤처창업 with 디노랩(전북 1기)' 개소식을 열고, 도내 디지털 금융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사업은 우리금융그룹 및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협업으로 추진되며, 전북자치도는 핀테크 분야 유망 스타트업 7개사를 최종 선정해 육성에 들어간다.

'디노랩(DINNOlab)'은 Digital Innovation Lab의 약자로, 우리금융그룹이 운영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6월 우리금융그룹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디노랩 전북 유치를 확정하고, 이번 개소를 계기로 도내 디지털 금융 중심지를 구축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선다.

선정된 기업은 △㈜토모로우 △머니가드서비스㈜ △㈜블루프로그 △커런시유나이티드 △피치 △㈜크래프타 △㈜인톡 등 총 7개사다. 이들 기업은 모바일 지급결제, 블록체인, 보안인증, 인슈어테크,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이달 초 우리금융 그룹 전문가들의 엄정한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3,5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공간 무상 제공, 경영·기술·투자 부문의 1:1 맞춤형 멘토링, 전문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우리금융그룹의 디노랩 프로그램과 연계해 투자유치 및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실질적 기회도 제공받는다.

이를 통해 기업은 우리금융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유치 및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가 가능하다.

디지털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북자치도의 의지는 핀테크 기업 집적화 추진으로 이어진다.

26일 전주 미래기술혁신센터에서 '2025년 금융혁신 벤처창업 with 디노랩(전북 1기)' 개소식이 열렸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중 전북혁신도시 및 만성지구 일원에 핀테크 육성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해당 지구에는 디지털 금융기업을 위한 창업 인프라와 입주 지원, 혁신금융 컨설팅, 해외 진출 연계 등을 제공해 기업 성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핀테크 육성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전북자치도가 운영하는 다양한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화 지원, 기술 검증(PoC), 투자 설명회(IR), 국내외 박람회 참가, 홍보 영상 제작 등 실질적인 성장지원 패키지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도내 스타트업들이 조기에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만호 기자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실시

김경식 군산시의원 발의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군산시의회 김경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군산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들이 실제 입법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실시, 대상, 시기 및 기준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를 위해 입법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두는 등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효율적 평가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평가가 끝나면 의회에 종합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입법평가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조문을신설하는 수정내용이 반영됐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한경봉 군산시의원 발의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거나 연상시키는 각종 상징물의 공공 사용을 제한해 지역사회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동시에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조형물, 위안부 피해자나 항일 독립운동 정신을 훼손하려는 도안이나 조형물 등의 공공장소·행사 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1개월 이상 설치·게시되는 디자인은 필요시 '군산시 일제 상징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와 함께, 역사 왜곡 방지를 위한 문화 조성과 교육·캠페인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군산=이재춘 기자

도 "여성농업인 지원 확대하겠다" | 경영 · 복지 · 보육 전방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자립과 복지 향상을 위해 2025년부터 더욱 세심한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전북도 농생명정책과 김신중 과장은 26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도에서 2025년에 총 128억 원을 투입해 경영, 복지, 보육 등 3개 분야 11개 세부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여성농업인의 경영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의 영농 활동을 돕기 위해 3개 사업 15억 원을 지원한다.

출산으로 인해 농사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출산 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 기간을 지난해 90일에서 올해 100일로 확대하고, 여기에 4억500만 원을 투입한다.

또한, 농작업 편의장비 보급을 확대해 지난해 1,500대(8종)에서 올해에는 2,000대(10종)로 늘리고, 10억 원을 지원한다. 여성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들녘 친환경 화장실도 지난해 18개소에서 올해에는 20개소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여기에 1억 원을 지원한다.

복지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김신중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장이 26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복지 분야에는 4개 사업 89억 원이 투입된다. 문화·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의 자부담을 폐지하고, 카드발급 방식을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변경하여 58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영농 도우미 농가 부담금을 지원해 사고·질병 발생 시 영농을 대행할 수 있도록 돕고, 농번기 공동급식 마을도 지난해 378개에서 올해에는 385개로 확대한다.

특히, 건강관리 지원이 강화된다. 51~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대상을 기존 6개 시·군(2,263명)에서 올해 14개 시·군(4,790명)으로 확대하고, 근골격계 질환, 농약 중독 예방 교육 등을 포함해 10억5,400만원을 투입한다.

보육 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보육 지원에도 4개 사업, 24억 원을 투자한다. 여성농업인센터 6개소를 운영하며, 영농과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농번기 돌봄 지원 대상을 기존 만 2세~초등학교 2학년 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올해에는 만 2세-초등 4학년까지 확대하고, 돌봄 기간도 4~8개월에서 최대 4~10개월까지 2개월 연장한다. 보육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는 찾아가는 돌봄교실과 놀이 차량을 운영해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촌 고령화와 농촌인력 감소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촘촘하게 발굴 지원하여 이를 확대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순창군의회 임시회 개회

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는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해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송정홍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이번에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5,311억원 대비 56억 원(1.1%)이 증가한 5,367억원으로 순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오후 추경 예산안을 심의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결산검사위원에는 신정이 의원(대표위원), 이성용 의원과 전직 공무원 등 외부위원 4명을 포함 총 6명이 선임됐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는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